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운문사 승가대학 흥륜 스님과 7회 동문 스님들의 아름다운 회향 동국대학교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운문사 승가대학 흥륜 스님은 7회 동문 스님들과 뜻을 모아 4월 27일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각각 7천만 원과 3천만 원, 총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흥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고자 미안마에 학교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문스님들과 함께 원력을 모으는 가운데 그 중의 일부를 먼저 동국대의료원에 전달했다. 흥륜 스님은 “평소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늘 배풀고 회향하는 모습을 보며 배웠으며, 자신 역시 50년간 출가자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회향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모은 정재를 기부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신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동국대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며 자비인술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전교직원들이 약왕보살로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2 행복 찾아 떠난 동학사 춘계사찰순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계룡산 북동쪽 기슭에 있는 동학사로 4월 26일 춘계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는 동학사의 봄날, 연우회원들은 계룡산 정기를 받으며 동학사에 올랐다.

연우회원들은 동학사 경내를 벗 삼아 경원 스님이 준비한 찰오곡밥으로 점심을 먹은 후 지객 스님으로부터 동학사 소개를 받았다.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실상선원과 대웅전, 삼성각 등 동학사의 숨은 이야기는 오직 사찰순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행오 스님은 특별 법문에서 “사람의 행복기준은 ‘부귀공명’, ‘안분지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 삶을 발전시키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조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03 김포 승가대학으로 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는 4월 29일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육화당과 화경당에서 약 90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한방치료 및 건강상담 등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침구과 조수정 전공의 등 15명의 연우회 회원들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약과 침 치료로 승가의료공양을 올렸다.

연우회는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의 학업수행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기증했고, 영양집중위원회(위원장 강현우)에서는 경구용 종합영양제를 후원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병원 업무를 마친 후 시행하여 몸은 힘들었지만, 나눔의 의미는 배가 된 행복충전 봉사였다.

연우회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인의 전문교육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과 2014년 3월부터 인연을 맺어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04 2015년 제1차 감성스쿨 ‘감성 커뮤니케이션’

간호부는 4월 22일 2015년 제1차 감성스쿨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개최했다.

감성스쿨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4회 진행될 예정이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간호업무 특성상 끊임없이 인간의 감정을 대해야 하는 간호사를 위해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정을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환자, 보호자, 동료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한다. 또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서로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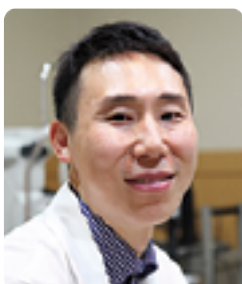
참석한 간호사들은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환자와 동료의 관계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인공 27호

안과

이호석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저에게 즐거운 경험을 보여준 안과 이호석 선생님입니다.

제가 갑자기 눈이 아파 안과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린 아이가 시력관련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검사장비에 놀라 눈을 뜨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고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호석 선생님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마음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검사를 유도하며 검사실 분위기를 확 바꾸더군요. 자칫 짜증이 날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자신의 일에 대해 좋아함을 넘어 즐기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원객을 대하는 일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호석 선생님을 보고 있는 동안 제 마음엔 엔돌핀이 쏟아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물들게 하는 사람, 공간 분위기를 항상 즐거움으로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 이런 분이 주인공 아닐까요?

재무회계팀 김 영 진

알 리 미

생활속 한지공예품 전시회 기간 : 5월 4일(월) ~ 5월 17일(일) | 장소 : 1층 로비

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5월 6일(수) 10: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
강사 : 한방안ibi인후피부과 홍승욱 교수 | 주제 : 알레르기 질환의 이해와 관리